

# 제55회 이사회 의사록

---

---

1. 회의일시 : 2019.08.09(금) 11:00 ~
2. 회의장소 : 드림파크문화재단 회의실
3. 출석임원 : 5명  
(1) 박광철 이사 (2) 김미화 이사 (3) 이기호 이사 (4) 진선호 이사  
(5) 성지원 이사 (6) 권승희 감사
4. 결석임원 : 1명(장정구 이사)
5. 배 석 자 : 사무국장 등 직원 13명
6.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안부서	의결내용
제2019-8호	2019년 가을나들이행사 기본계획(초안) 보고	사무국장	사무국	보고안건
제2019-9호	드림파크문화재단 이사장 선출(안)	사무국장	사무국	심의의결

## 7. 회의 주요내용(요약)

- 의안 제2019-8호 ⇒ 2019년 가을나들이 행사 기본계획(초안) 보고 ⇒ “보고사항”
- 의안 제2019-9호 ⇒ 드림파크문화재단 이사장 선출(안) : 심의사항 ⇒ “원안의결”
  - 신임이사장 : 박광철
  - 임기 ⇒ 6개월 이내로 한다

8. 기록자 : 송 용 원

위 결의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함.

2019. 08. 09.(금).

이사장 직무대행 박 광 칠 ①

이 사 성 지 원 ①

이 사 김 미 화 ①

이 사 장 정 구 ①

이 사 이 기 호 ①

이 사 진 선 호 ①

감 사 권 승 희 ①

## 제55회 이사회 회의전말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대행	<p>○ 성원이 다 돼서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드림파크문화재단 제55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b>&lt;의사봉 3타&gt;</b></p> <p>○ 금일 안건은 보고안건 1건과 심의안건 1건입니다.          의안번호 2019-8호 「2019년 가을나들이 행사 기본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b>&lt;의사봉 3타&gt;</b></p>
TF팀 박원성	<p>○ 행사 TF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 가을나들이 행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사업개발 및 문화행사 TF팀 박원성입니다.          2019년 가을나들이 행사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야생화단지에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소요예산은 12억 32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중 행사비로는 9억 원이고, 꽃밭조성이 3억 3200입니다.          행사의 추진방향은 환경과 문화 분야 친환경문화행사로 하는데 저희들이 매립지 식재된 수목이라든가 관목을 이용한 작품이라든가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터 운영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p>이사장 대행</p>	<p>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전시장 조성하고 행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 전시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군락지 환경테마전시장을 조성하고, 주요 콘텐츠로는 전통놀이체험과 팔씨름 대회, 그리고 그네, 널뛰기 등 전통체험을 할 계획이고, 야외공연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 전시로는 SL공사 국립생물자연관 전시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유관기관 서구청 녹청자 체험, 인천시 소방안전체험 등도 시행할 계획입니다.</p> <p>전시장 조성은 대군락지 꽃밭조성이 있습니다. 코스모스하고 백일홍, 핑크물리, 호박터널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토피어리 국화작품 한 40개하고 분재 200여개 전시할 계획입니다.</p> <p>행사 프로그램은 환경콘텐츠, 문화콘텐츠, 어울림콘텐츠 등이 있는데 환경콘텐츠로는 환경 뮤지컬과 ***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로는 전통놀이체험하고 즉석팔씨름대회, 뮤직박스 등 야외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어울림콘텐츠는 주민참여 정원 만들기 콘텐츠가 있고, 주민초청행사가 있습니다. 서구연합 ***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시회 부스 운영인데 이거는 환경 관련해서 한 달 매립지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식물 판넬하고 화분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국립생물자연관에서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p> <p>○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계획인데 그래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시오.
이기호 이사	○ 작년 18년도에는 행사비가 8억, 여기 올해는 9억 잡혀 있는데 증액된 거죠? 저쪽에서.
TF팀 박원성	○ 금액은 9억 같습니다.
이기호 이사	○ 작년에도 9억 했어요?
TF팀 박원성	○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 이사	○ 똑같아요? 그럼 더 이상 추가로 더 증액된 건 없습니까? 아니, 보완하려면 더 갖다 했겠죠.
TF팀 박원성	○ 전년도도 저희들이 9억을 가지고 기반시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반시설공사 대신에 쉼터라든가 작품 같은 걸 조금 더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기호 이사	○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 안 하고 이쪽에다.
TF팀 박원성	○ 예. 그래서 허브원도 조성하고요, 미로원도 일부 조성하고. 그리고 계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품들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지원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최 측으로부터 우리가 주관하면 관리비용 같은 게 나올 텐데 그거 받는 거 있습니까?
TF팀 박원성	○ 저희들 위탁수수료.
성지원 이사	○ 여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TF팀 박원성	○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지원 이사	○ 협찬이나 후원회사는 없습니까? 협찬이나 후원을 받으면 관련 은행도 있을 것이고, 공사하고 연계하다 보면 우리가 협찬이나 후원을 받으면, 여기 수입에는 나

발 언 자	발 언 내 용
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	<p>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들 후원금은 일부 나오는 게 있는데요,</li> <li>○ 아니, 후원기관이나 협찬기관을 혹시 우리가 유치한 일이 있는지, 또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에 아마 수익이 생길 테니까.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붙을 수 있고. 은행 같은 데 좋잖아요. 우리 관내 무슨 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li> </ul>
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 이사장 대행 성지원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는 현금인출기 같은 것을 협조를 받아 설치 해서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게 진행하고 있고요.</li> <li>○ 그러면 그거를.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li> <li>○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li> <li>○ 그러면 현금인출기를 놓는다 그러면 들어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li> </ul>
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편의 제공하는 겁니다.</li> <li>○ 그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협찬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건 없습니까?</li> </ul>
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습니다.</li> <li>○ 한번 제 생각에는 생각을 한번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li> </ul>
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 그다음에 홍보전시부스 운영하면 이것도 전시부스 운영하면 우리가 간이전물이라든가 지을 것 아닙니까?</li> </ul>
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부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 그러면 거기서도 수익이 생기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재단의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말</li> </ul>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TF팀 박원성 성지원 이사</p> <p>김미화 이사</p>	<p>씀을 드리는 겁니다.</p> <p>○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p> <p>○ 제 생각에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협찬이나 후원사, 그다음 홍보관 하면 거기서부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고맙습니다.</p> <p>○ 저는 말씀이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라는 협소한 저기가 있는데 행사를 보면 다른 행사랑 큰 차별이 없는 그런 행사가 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매립지에서 하는 나들이 이런 행사 그러면 물론 꽃도 조성은 해놨지만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체험이라든가 기타 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p> <p>그래서 축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는 수도권매립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보여져야 되거든요.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p> <p>전시회 하게 되면 다른 데 전시회 할 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인데 장시간 타임으로 해서 DIY라든가 굉장히 작품이 잘되어 있는 작품도 있을 거고.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패션쇼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DIY를 가지고 패션쇼를 하든.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장시간 단위로 해 갖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잘 안 보여서. 이후에 계승을 하시면 조금 더 이걸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p> <p>○ 지금 김기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단에서도</p>
이사장 대행	○ 지금 김기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단에서도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참고하고 우리 *** 처장님 와 있죠? 좋은 의견 같으니까. 기본계획이니까 작년보다 몇 가지는 보완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가을나들이 행사 주관은 공사의 드림파크 여기에서 합니다. 시행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 세 분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세부계획 세울 때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p> <p>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없으십니까?</p> <p>&lt;없습니다.&gt;</p> <p>○ 그럼 이상의 2019년 가을나들이 행사 기본계획(초안)에 관한 안건은 세 분 이사님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b>&lt;의사봉 3타&gt;</b></p> <p>이사장 대행 ○ 다음 안건 의안번호 2019-9호 「드림파크문화재단 이사장 선출(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안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사무국장 ○ 의안번호 2019-9호 「드림파크문화재단 이사장 선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p> <p>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이사장 부재로 인해서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은행의 통장개설이라든지 또 각종 보험가입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재단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대행	<p>그래서 정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님들 중에서 이사장을 임시적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p> <p>주요 골자입니다. 행정절차를 위한 임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박광철 직무대행이신데 박광철 이사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p> <p>이사장의 임기는 규정상으로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하는데 이번에 선출되는 이사장님은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p> <p>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p> <p>○ 제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저에 대한 의사 문제라서 자리에 조금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p>
진선호 이사	<p>〈이사장 대행 이동〉</p> <p>○ 지금 공식으로 있던 지가 얼마나 됐죠?</p>
사무국장	<p>○ 작년 10월 15일부터이기 때문에,</p>
진선호 이사	<p>○ 그럼 지금 한 10개월 됐네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진행해왔어요?</p>
사무국장	<p>○ 그동안에는 행사든지 그 전에 저희가 공식 이사장님의 명의로 해서 인감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커버를 해왔는데 지금 그것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p>
진선호 이사	<p>○ 이제 와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표협의체에서도 사장님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급한 일이 뭐니까? 국화축제예요?</p>
사무국장	<p>○ 국화축제도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진선호 이사	<p>으로 저희가 일상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통장 개설하는 데 가장 시급합니다.</p> <p>○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재단 사무장님도 생각 좀 하셔야 돼.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지금 10개월 지난 다음에. 앞으로 두 달 있으면 1년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환경부 이사님도 와계시지만 환경부에서 꼭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보내려면 빨리 보내든가. 지금 10개월이예요, 10개월. 이해가 안 가는 게 환경부 관리감독으로 내려오셨는데 거기서 이사장을 또 환경부 측에서 보낸다? 그러면 우리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오시는 거 아니예요, 이사장이.</p>
사무국장 진선호 이사	<p>○ 그렇습니다.</p> <p>○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1년 예산이 계속 삭감이 돼요, 삭감이. 지금 여태까지 버텨나온 이유는, 축제도 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지원기금이나 상생협의회 수익금으로 보조를. 이번에도 9억 들어가는 것도 상생에서 해주는 거죠? 수익금 가지고 해주는 거죠?</p>
TF팀 박원성 진선호 이사	<p>○ 예, 그렇습니다.</p> <p>○ 지금 그런 말까지 나와요, 협의체에서는. 이제는 지원 못 하겠다. 과거에는 이게 다 공사에서 하던 일이에요. 관리공사에서 다 했던 일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잘라져나가면서 수익금 갖다 쓰는 거란 말이야.</p> <p>저는 박광철 본부장님이 이사장으로 오신다는 거는</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권승희 감사	<p>저는 반대를 해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몇 개월이라든가 지금 급하니까 몇 개월이라는 문구를 남긴다든가, 안 그러면 그 차후에는 지역주민이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문화재단의 목적이 뭐예요? 나무심기 아니예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 그루 나무심기로 시작된 거 아니예요. 이게 주민이 설립한 게 아니예요. 공사에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공사 분들도 올라가면 좀 지원도 해주고. 이번 보세요. 3-1 매립장 *** 수림대공사 그것도 원래는 재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게 나무심기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는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봐갖고 입찰을 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p> <p>○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신데 이걸 안전이 이거니까 이것을 일단 하고 나서 간담회 식으로나 이사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환경부와 이렇게 의견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사회 안전은 이분을 이사장으로 하실 거냐라는 안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리가 있지만 하시더라도 안전하고 조금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한 가부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서 환경부에서도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p> <p>덧붙여 하나만 말씀드리면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6개월이면 6개월이고, 다만 그</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무국장	<p>이후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p> <p>○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차피 기간 정하는 것과 이사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이사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p>
권승희 감사 직원	<p>○ 6개월 이내로 한다가?</p> <p>○ 예.</p>
권승희 감사	<p>○ 6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면 단서규정을 두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이 6개월 이내로 한다고 하니 이게 법률적,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되는데 이게 좀.</p>
환경부 권승희 감사	<p>○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라는 그런.</p> <p>○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할 때는 그때까지 한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p>
직원	<p>○ 예, 자문 받았습니다.</p>
권승희 감사	<p>○ 자문 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p>
사무국장	<p>○ 6개월 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 재단이 아시겠지만 매립지공사하고의 관</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기호 이사	<p>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통해서 매립지를 위탁화 시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상생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 선출 건도 주민지역협의체라든지 그런 주민관계 쪽에 계신 분들하고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역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다수의견으로 나온 것들이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자.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p> <p>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어쨌든 간에 황홍석 전임 이사장이 별세하시고 나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공식으로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박광철 대행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 이사장으로 온다고 해서 급료도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의 본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짐만 지는 이런 일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p> <p>어쨌든 간에 저도 환경부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사랑 조속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누가 오든, 어떻게 보면 전임 이사장님은 환경부에서도 오셨고, 또 청와대를 통해서 정치권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나 지역주민들한테도 너무 이게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김미화 이사	<p>공사와 재단과의 역할을 해야 될 이사장을 계속 공식으로 놔두고 가는 자체도 저희 이사로서도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p> <p>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재단 사무국장님께서 협의체랑 공사랑 오래 다니면서 나온 안이 6개월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올 연말까지가 또 박광철 본부장님의 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p> <p>그래서 이럴 때 역할을 좀 하면서 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안 해주면 우리가 통장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재단이 거의 예산이나 이런 게 올스톱 돼서 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박광철 본부장님을 6개월 이내로 하면서 공사나 우리 환경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올 연말이라도 빨리 이사장님을 내정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서 공문이라든가 해서 빨리 조속히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p> <p>어쨌든 간에 저는 박광철 권한대행이죠. 이사장 권한대행을 임시적으로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단서를 달아서 이사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p> <p>○ 지난번에 이사장 대행 교체를 할 때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행하시던 분이 그만두게 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그때도 우리는 곧바로 될 것이다. 그때도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9개월이 지났고,</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누가 된다, 누가 된다 해도 이게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닌데.</p>
이기호 이사	<p>○ 큰 자리 같으면 이사님, 와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p>
진선호 이사	<p>○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큰 자리가 아니니까.</p>
이기호 이사	<p>○ 예, 안 오는 거야.</p>
진선호 이사	<p>○ 지역 일이에요. 지역 일. 지역 일이니까 지역 사람이 이사장으로 갈 수 있게끔 폭을 넓혀달라는 거지.</p>
김미화 이사	<p>○ 그거는 지역사회니까 어쨌든 사람 후보군을 이렇게 좀 저기해갖고 빨리 이걸 해야지.</p>
진선호 이사	<p>○ 그런데 지금 생각을 무조건 여기는 청와대나 환경부 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깐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야.</p>
김미화 이사	<p>○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p>
환경부	<p>○ 저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왔지만 인사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인사과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식으로 남길 자리인 것 같으면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진선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 이사회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깐 제가 환경부로 가서 우리 인사 과장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p>
진선호 이사	<p>○ 주민들은 지역주민이 현안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깐 생각이 없으신 건 환경부예요.</p>
이기호 이사	<p>○ 진 이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의사를 가지고,</p>
진선호 이사	<p>○ 이거 넣으시고 그거 6월까지라니까 확실하게 문구를</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김미화 이사	<p>넣으세요. 그냥 눌러앉으면 또 골치 아파. 왜냐하면 퇴임을 하시잖아, 3개월 후에는.</p> <p>○ 어쨌든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지역주민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걸 여기 글 만든 사람이 잘 하시는 분.</p>
이기호 이사	○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김미화 이사	○ 정치적으로 오시지 말고, 진짜 여기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오도록 환경부에서. 만약에 환경부가 최종 인준을 하는 저기라면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연세 드시고 이렇게 아, 온 데로 돌아다니시다가 갈 곳 없어 오는 이런 사람은 좀 하지 마세요. 건강한 위주로 받아야지.
환경부	○ 예, 강력하게 제가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이사장이 없어도 이 재단의 업무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한정을 했으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이 사장을 ***
진선호 이사	○ 국장님, 그거 문구에 집어넣으세요.
사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진선호 이사	○ 오늘 회의록에 다 집어넣으시라고.
사무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호 이사	○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임기하고 다 집어넣으라고.
사무국장	○ 예. 본부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김미화 이사	○ 6개월 이내에는 이사장님 오시겠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기호 이사	○ 와야 돼요. (웃음)
	〈권한대행 이사장 입장〉
이사장 대행	○ 많은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김미화 이사	○ 치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사장 대행	○ 그걸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대략 이기호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이기호 이사	○ 예. 이사님들이 다 한 번 얘기를 했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대행이 아니야, 이제 이사장. 정식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이사장님께서 전하고 틀려요. 대행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진선호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재방 이런 수립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분명히 여기 보훈처장님 계시지만 챙겨서 재단의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이니까. 저도 이제 이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전에는 대행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역할을 이사장님이 더 짐을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대행	○ 지금까지 이기호 이사님께서 이사여러분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장 대행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 data-bbox="491 300 737 344">〈의사봉 3타〉</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